화해의 덕성 길러 인간의 뜰 소생시켜야

원광의 빛 되는 새해 아침 묵은 것 버리고 마음밭 경작을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신령스러운 광채가 새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무진복락(無盡福樂)을 이루는 門(문)이 열리고 하늘이 天機(천기)를 움직여 한없는 공덕을 풀어내니 萬物(만물)은 秬澤(이택)을 입고 환희의 눈을 뜹니다.

곳곳에서 장악을 무너뜨리는 法雷(법뢰)가 일고 大施門(대시문)이 열리니 十方(시방)에 가득한 障礙(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頭頭物物(두두물물)이 제몸을 풀어 本分消息(본분소식)을 전하니 걸음마다 普門(보문)이요 이르는 곳마다 圓通(원통)입니다.

생각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부처를 빚어내고 一草一木(일초일목)은 얽매이는 틀을 벗고 法身(법신)의 面目(면목)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깨달음이 있고 눈빛이 닿는 곳에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出身活路(출신활로)가 있습니다.

일체제불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面前(면전)에 출입하고 있는 無位眞人(무위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햇살도 가슴에 담아두면 圓光(원광)의 빛이 되는 새해 아침에 묵은 것을 버리고 빛이 소생하는 마음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다투며 갈라지고 증오와 분노로 마음밭이 거칠어졌으니 忍耐(인내)와 용서하는 和解(화해)의 德性(덕성)을 길러 인간의 뜰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萬法(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願(원)을 세운 이는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宇宙(우주)를 세울 것이요

일체를 담아내는 包容(포용)의 큰 그릇을 이룬 이는 萬德(만덕)의 기틀을 얻어 이웃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 정신으로 어려운 시대 슬기롭게 극복하자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서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사람 인(人), 사이 간(間)' 입니다. 즉, 인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루며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성장과 과학 기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에서 "비구들아 유행하라. 중생의 애민을 위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과 안락을 위해"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적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하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종교는 이제 종교 본연의 모습과 함께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야하며, 종교시설은 최대한 사회복지와 교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생활 제공, 그리고 힐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당당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성도합시다.

진심과 공심으로 소통하는 새해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개인의 팔만사천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누구나 선명상(禪冥想)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지남(指南)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하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입불상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계묘년에는 화합과 상생의 북을 두드려 진리의 법우(法雨)로써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하나하나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 보살도가 성취되리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곳에 여래의 지혜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관음의 자비가 있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청정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고난에서 행복을 건질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희망과 행복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행복이 공존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삶에 편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병들게 하여 온갖 재해가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도 발생하니 이야말로 중생의 공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단이 마주 서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체의 생명이 존중되고 상생하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변혁이 세상의 변혁임을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의 보살도가 성취되어 정토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새해, 계묘년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밝혀 복덕을 구족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가 삼독을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향하며 나누어 함께 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계묘년(癸卯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 우리 모두 지혜(智慧)를 밝히면서 자비(慈悲)를 나눕시다. 복덕(福德)을 지으면서 희망(希望)을 나눕시다.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면 이것이 곧 인(因)이 되고 새로운 연(緣)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곧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서원(誓願)을 세웁시다. 실천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소원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서로를 칭찬합시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인(心印)으로 연결되고 통하면 인류와 사회의 질서(秩序)는 바로 서고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대자유인이 되자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700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몸을 완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루에도 8만 번뇌로 갈등하고, 또 욕심을 냅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하여 대자유인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번뇌도 능히 물리쳐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혜 광명이 충만하여 상생의 삶 펼쳐 지리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도 지나가고, 새 희망과 기대 속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영민함을 상징하고,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올해는 지혜의 광명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행(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불자 가족 모두가 더 힘찬 희망으로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발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해도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가지(加持)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며 무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분들께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는 광명변조(光明遍照)요, 제암변명(除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無生滅)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은 모든 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지심으로 참회하고, 수미산 같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나날이 되도록 앞서 나갑시다.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무량공적 지으십시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새로운 시작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회한과 고통을
깊은 참회와 발원으로
회향하고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발심하여
무량공덕을 지으십시오.

분별하고 구하는 마음 없이 무심으로 기도하며
덕을 베푸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니
자비롭게 일체를 살려 나감으로
자취 없는 보살도를 완성하십시오.

스스로 짓는 미혹한 생각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니
마음 하나 쉬고 나면 온 법계가 고요해집니다.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기를 힘쓰며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인연으로 바른 법을 만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입니다.

원융의 도리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기도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먼저 참회하고 용서하면 안락정토가 도래하나니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우주 운행의 큰 기운을 품고서
또 다시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에 감도는 서기瑞氣를 입어
나날이 생기 넘치는 한 해를 서원합니다.

사바세계 곳곳에서 네 탓으로 다투면서
아픔과 굶주림이 시름시름 깊어갈 때
내가 먼저 참회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면
안락정토 여기라고 진각종문 설합니다.

중생이 터 잡아서 살고 있는 여기저기
갈등을 넘어 미움의 불길이 치솟아도
참회와 용서의 묘약을 정성들여 받들면
환한 웃음 마주하는 눈길이 기다립니다.

연꽃이 진토에서 고운 모습 피우듯이
의왕은 잡초 약초 분별하지 아니하고
갑남을녀 저마다 본래 빛깔 드러내면
치유의 손길 주고받는 은혜 세상 열립니다.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그렇게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봅시다.